

“동부권 특수학교 건립 만전”

서 교육감, 장수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 열고 정책 공유 옛 장수원촌초 찾아 동부산악권 특수학교 설립 추진사항도 점검

서거석 교육감이 26일 장수를 방문해 동부권 특수학교 건립 부지를 둘러봤다.

이날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에 참석한 서 교육감은 학부모·교직원 등 350여 명과 함께 10대 핵심과제 등 주요 교육정책을 공유했다.

공감토크 참석자들은 △작은학교 활성화 방안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서거석 교육감은 옛 장수원촌초등학교를 찾아 (가칭)동부산악권 특수학교 설립 추진 사항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은 특수학교 건립 현장 관계자들에게 “2026년 3월 개교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도내 첫 동부권 특수학교로, 18학급, 학생 7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공감토크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교육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작은학교 활성화와 같은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이 전북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6일 장수 한누리전당에서 열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학부모·교직원 등 350여 명과 함께 10대 핵심과제 등 주요 교육정책을 공유했다.

학생 창업정신 고취... ‘2024 메가 어스 엑스포’ 성황리

전국 창업중심대학·창조경제혁신센터·전북테크노파크 협업... 대학 창업활성화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22~24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북테크노파크, 국내 창업중심대학 등과 함께 메가 어스 엑스포(MEGA US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2022년부터 전북대 창업지원단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심으로 시작, 전국적 행사로 발돋움했다. 이후 전국 6개 창업지원단과 전국 26개 창업지원 기관, 그리고 166개 국내 창업기업, 3,000명 이상의 현지 바이어 및 투자자가 참여하는 매머드급 행사로 성장했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22~24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북테크노파크, 국내 창업중심대학 등과 함께 메가 어스 엑스포(MEGA US EXPO)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인 (쥬제이케이노보바이오 등의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실제 구매의향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유니브스타 글로벌 창업 캠프에서는 전북대를 비롯한 국내 7개 대학(강원대, 국립순천대, 부산대, 원광대, 전북대, 전남대, 호서대)과 호치민시과학기술부, 사이공이노베이션허브 공동 주관으로 한국, 베트남 대학생 총 160명 선발해 20팀을 구성했다.

이 대회는 창업 정신을 고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한

국과 베트남의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팀을 구성, 상호보완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시장에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다.

유니브스타에 참가한 전북대학교 박선민(이동학과 24학번)은 “평소에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던 프로그램을 베트남 학생들과 함께 해 처음에는 버거웠지만 점차 그 부분 또한 즐기게 됐다”며 “창업교육센터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제안한 아이디어로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한 좋은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 A중 아동학대 신고 경찰조사 ‘혐의없음’ 당연한 결과”

전교조 전북지부

전교조 전북지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읍 A중학교에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하다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를 당했던 교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쉬어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하다”라고 했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교사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다. 친구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서 당시 피해 주장 학생의 보호자가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에게 분리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 교사는 ‘학폭에 의한 절차적 과정없이 교사가

임의로 강제 분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해당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교사가 친구의 괴롭힘에 방조’했다는 내용을 포함,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문제삼아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교육인권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읍경찰서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냈다는 것. 결정서에는 신고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한 내의 재량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여타 다른 사건들을 보았을 때 학부모들의 고소·고발이 여기서 끝날지도 의문”이라며 “교육감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심리적 치료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입장을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삼계교육가족 ‘농촌유학의 향기로운 산책’ 프로그램이 지난 23~24일 이틀간 임실성수산 왕의숲국민여가캠핑장에서 진행했다.

‘이것이 전북 농촌유학의 매력’

임실 삼계초, 삼계교육가족 ‘농촌유학 향기로운 산책’

임실 삼계초등학교가 전북 농촌유학의 매력을 알렸다.

그 일환으로 삼계교육가족 ‘농촌유학의 향기로운 산책’ 프로그램을 지난 23~24일 이틀간 임실성수산 왕의숲국민여가캠핑장에서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유학에 관심있는 타 지역 학생 및 학부모 60여 명을 초청해 삼계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함께 전래놀이를 했다. 이어 저녁에는 조를 편성해 가족들이 함께 바비큐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김용택 시인의 동시 산책을 통해 아이들이 시로 마음을 표현해 보고,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성수산 산책도 했다.

특히 삼계초는 지난 3월 1일 이

수연 교장이 공모교장으로 부임하면서 교직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농촌유학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2학기에는 3가정이 이주해(서울 2가정, 경기도 1가정) 초등학생수가 8명에서 15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유치원생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이에 삼계초 총동문회에서도 전입생 장학금(1인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등 농촌유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연수 교장은 “내년에도 꼭 연락달라는 학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농촌유학 온 학생이 앞으로 6년을 더 있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면서 “농촌유학을 온 학생과 학부모들이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는 지난 23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실에서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졸업, 새로운 배움의 시작”

전주교대,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23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실에서 202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연혁보고 △△학위증서 수여 △축사 △폐식사 순으로 진행, 졸업생과 가족, 전주교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박병춘 총장과 고한중 대학원장이 직접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를 받은 졸업자는 교육학사 1명,

교육학 석사 67명이다.

한편 전주교대는 졸업생이 가족 친구와 추억을 남기도록 행사장 주변에 포토존을 설치했다.

박병춘 총장은 “긴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학위를 취득한 모든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졸업은 새로운 배움의 시작으로 우리 대학에서 터득한 지식과 강인한 도전 정신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전북 로컬벤처 비즈니스 포럼 공동개최

‘콘텐츠, 로컬벤처, 지역산업 새 패러다임’ 주제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로컬벤처학부(학부장 김시열)는 지난 23일 대원미디어(주)(대표 정욱, 정동훈)와 공동으로 ‘전북 로컬벤처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로컬벤처, 지역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로컬벤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전주대 로컬벤처학부와 글로벌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대원미디어(주)가 서로의 역량을 융합해 전북에서의 로컬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의 영상 축사로 시작된 포럼은 대원미디어(주) 김종래 부장이 장구 도시 일본 카스카베 시와 전주 한옥마을의 장구 팝업스토어 시례를 통한 지역발전과 콘텐츠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대원미디어(주) 김선일 이사가 캐릭터 콘텐츠의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 전략과 지역성의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는 전주대 로컬벤처학부의 김시열 교수가 로컬창업과 비즈니스 역량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전북의 발전과 로컬벤처의 활성화를 주제로 패널 좌담회가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 제3차 정기회의 개최

대학기관평가 인증 지표 변경 대학 정보화 예산 증액 등 논의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23일 무주군 일원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보화 관련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거점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국가거점국립대 발전협의회 설립에 대한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일환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건인해야 하는 거점국립대학교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거점국립대학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는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 개최대학인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거점국립대학들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면서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비상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때”라며 “서로 협력하고 역량을 모아 지역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한편,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0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회원교인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회장교)·충남대·충북대 등이 국가거점국립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청렴 공감 갤러리, 9월 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9월 6일까지 청렴 공감 갤러리 ‘청렴이 스며들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본관 중앙현관에 마련된 청렴 공감 갤러리는 청렴에 대한 교육 가족의 관심도를 높여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2024 전북교육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15점과 청렴 실천 영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진로·진학 박람회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4일 스타센터에서 2024년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역 내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과 체험관에서는 ‘드론 체험’, MBTI별 직업 찾기, ‘블록체인 작동 원리 체험’, ‘초음파로 심장 소리 듣기’ 등 50여 개 학과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대입 상담관에서는 전주대 입학사정관의 1:1 맞춤형 입학 상담이 각각 진행됐다.

또한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는 대화고 최승후 부장교사, 인천제일고 임병훈 부장교사, 전주대 김소정 책임입학사정관의 전문가 특강이 마련,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전주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와 반려동물산업학과를 신설, 오는 9월 9~13일까지 수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